

엔도 슈사쿠 문학의 종교에 대한 틀 깨기*

이영화**
kami-ai@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기 | 3. 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 |
| 2. 엔도슈사쿠와 가톨릭 | 4. 종교의 틀 깨기 |

主題語: 엔도 슈사쿠(Endo Shusaku), 신학(Theology), 문학(Literature), 종교(Religion), 경계 허물기(Break down boundaries)

1. 들어가기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1923년-1996년)는 일본의 가톨릭 작가이다. 엔도 문학의 전반적인 핵심을 이루는 작품은 기독교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에세이와 희곡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자신이 가톨릭 신자였던 엔도는 특히 신학적, 혹은 기독교적 주제를 문학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엔도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을 통해 서양의 엄격한 부성적인 신을 일본 문화와 정서에 맞는 자비로운 모성적인 신으로 그려냄으로써, 신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했다. 또한 최후의 작품이 된 『깊은 강』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통한 종교의 경계 허물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종교 너머를 사유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은 자신의 종교를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신학적 주제를 문학적 소재로 활용한 엔도의 작품을 통해, 문학적 상상력과 신학적 사유의 만남의 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거꾸로 문학이 문학의 역할을 넘어 신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제와 비슷한 선행 논문으로는 후루하시 마사나오(古橋昌尚)¹⁾의 「엔도 슈사쿠의

* 본고에 인용된 엔도 슈사쿠의 작품은 『엔도슈사쿠 문학전집』 전15권, 신초샤, 1999년-2000년(遠藤周作 『遠藤周作文学全集』全15卷、新潮社、1999年-2000年)을 참고했다.

본고에 인용된 한국어 번역문은 모두 필자의 번역임을 밝혀둔다.

** 조사이국제대학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조교

창작방법에 나타난 신학적 의도—신학의 방법과 형태에 대한 시사)와, 아센서 아데리노(Ascenso Adelino)²⁾의 『엔도 슈사쿠—문학과 신학의 세계』를 들 수 있다. 본고는 이 두 논문 이외에도 각 작품들에 대해 분석한 기존 논문들을 참고하면서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2. 엔도 슈사쿠와 가톨릭

엔도 슈사쿠의 문학 활동과 가톨릭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그에게 가톨릭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엔도는 자신의 의지라기보다 어머니의 권유로 중학교 1학년 때인 12살 때 세례를 받았다. 세례식 때, “하느님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건성으로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회상하는 것을 보면, 사춘기 소년인 그에게 가톨릭 세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³⁾. 그러나 그는 자신의 종교를 ‘맞지 않는 양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부해하면서도 생애 마지막까지 종교를 버리지 않았다⁴⁾. 오히려 자신이 선택해서 입은 옷이 아닌 억지로 입은 옷처럼 불편했던 양복을 일본인의 몸에 맞게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사색한 것을 문학으로 표현해 내었다.

「아덴까지」(「アデンまで」1954년)⁵⁾는 엔도가 발표한 최초의 소설로 엔도 스스로 자신이 “지금까지 쓴 소설의 원형 같은 것”이라고 했다⁶⁾. 작가의 자전적 색채가 짙은 작품으로 알려진 「아덴까지」를 통해 엔도 문학의 원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엔도는 1950년, 프랑스 문학⁷⁾을 연구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다. 하지만, 건강을 해쳐 1953년 귀국하게 되는데, 「아덴까지」의 ‘나’로 지칭되는 유학생 지바도 건강을 해쳐 3년에 걸친 유학 생활을 접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나’의 인물 설정이 엔도의 경험과 부합되는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구타 요시타카(菊田義孝)의 “백색인종과 유색인종 사이에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을 느낀 엔도의 절망적인 확신이 낳은

1) 古橋昌尚(2014)「遠藤周作の創作方法に見る神学的意図—神学の方法と形態への示唆—」『遠藤周作研究 第七号』遠藤周作学会事務局, pp.84-103

2) Ascenso Adelino(2013)『遠藤周作—その文学と神学の世界』教友社

3) 遠藤周作(2000)「合わない洋服」(『新潮』1967)遠藤周作『遠藤周作文学全集』第12巻、新潮社、p.395

4) 1996년, 폐렴으로 사망한 엔도의 장례미사는 도쿄 고지마치의 성이그나시오 교회에서 치러졌다.

5) 遠藤周作(1954)「アデンまで」『三田文学』慶應義塾大学出版会

6) 遠藤周作(2000)「わが小説」(『朝日新聞』1962년3월30일)遠藤周作『遠藤周作文学全集』第12巻、新潮社、p.282

7) 엔도는 ‘프랑스와 모리악 작품에 나타난 사랑과 인식’이란 제목의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山根道公(2005)『遠藤周作—その人生と『沈黙』の眞実』朝文社、p.120)

작품⁸⁾이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의 자전적 경험이 많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엔도는 프랑스로 가기 위해 마르세이유호 4등 선실에 타고 요코하마항을 출발한다. 배 안에서 백인 보이로부터 받은 경멸과 모멸, 그리고 도중의 기항지에서도 전범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폭언을 당해 사흘이나 짐칸에 숨어 있었던 적도 있다⁹⁾. 프랑스에 도착한 이후에도 점차 연구실에 들어갈 마음을 포기할 정도로 커다란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다¹⁰⁾. 「아덴까지」는 백인 여성과 ‘나’의 연애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신체의 색깔을 둘러싼 ‘나’의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다. 다케다 히데미(武田秀美)가 “황색인종의 신에 대한 탐구”¹¹⁾라고 한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덴까지」는 신이나 종교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피부색의 대립이라는 설정을 통해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일본 옷으로 고쳐 만드는 작업’, 즉 일본인과 일본문화에 맞는 신의 탐구라는 의식이 짙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아덴까지」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어 전개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실망과 분노에 차있던 ‘나’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를 보고 “참을 수 없는 향수”를 느낀다. ‘나’는 3년 전 유럽으로 떠나던 때를 회상해보지만 그때는 그렇게 감동했던 기억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황색인종이라는 것을 그다지 생각한 적이 없었”고, “피부색의 대립에 대해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인종차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유럽 문화에 쉽게 융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좌절을 느끼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상에서, 그때는 와닿지 않았던 풍경을 지금은 절실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향수마저 불러 일으키게 된다.

한 마리의 낙타가 주인도 없이, 짐도 지지 않고, 지평선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p.22)

역사도 없고, 시간도 없는, 인간의 영위를 완전히 거부한 무감동한 모래 속을 한 마리의 낙타가 지평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풍경이, 그것은 웬지 모르게, 내게는 참을 수 없는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p.23)

8) 菊田義孝(1987)『遠藤周作論』永田書房、p.65
 9) 遠藤周作(1980)『遠藤周作による遠藤周作』青銅社、p.71
 10) 遠藤周作(1992)『異邦人の苦惱』『切支丹時代—殉教と棄教の歴史』小学館、p.236(初出は「別冊新評」1973年12月)
 11) 武田秀美(1992)『『アデンまで』二つの視点—肌の色による非条理と「黄色人にとっての神の探求」—』『作品論 遠藤周作』笠井秋生、玉置邦雄編、双文社出版、p.9

위에 인용한 “한 마리의 낙타”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가사이 아키후(笠井秋生)는 “일본이라는 풍토 속에서 가톨릭 작가로서 걸어가게 될 엔도의 모습이 겹쳐진다”¹²⁾고 했다. 가사이의 견해와 같이 「아덴까지」는 많은 주제가 함축되어 있어, 이러한 것들이 가톨릭 신자인 작가의 사색과 맞물려 이후의 작품에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나가후지 다케시(永藤武)가 엔도의 “유학체험이 그의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¹³⁾고 지적한 것처럼, 그의 유학 체험은 비평가에서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

앞장에서 말했듯이 엔도는 3년여에 걸친 프랑스 유학생 생활 동안 그곳에 융화되지 못하고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유학을 도중에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온 엔도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아덴까지」를 통해 ‘피부색의 대립’, 즉 ‘인종 문제’라는 주제를 내세워 서구 기독교 세계에 내재된 보편 개념과의 충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엔도 문학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침묵(沈黙)』(신초사, 1966년)을 중심으로 작가가 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변용시켜 형상화해 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덴까지」가 문학의 신학적 주제가 짝트게 된 시기였다면, 『침묵』은 역사소설이라는 틀을 이용해 신의 이미지에 대한 과감한 재해석을 시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덴까지」가 일본인의 유럽 체험이라고 한다면, 『침묵』은 넓은 의미로 시간과 공간을 바꾸어 외국인 사제의 일본 선교, 달리 말하면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일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침묵』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쿠보 미노루(小久保實)는 “신의 존재, 배교의 심리, 동양과 서양의 사상적 단절 등을 통해, 기독교의 신은 무엇인가를 정면에서 추구한 작품”¹⁴⁾이라고 평했고, 에토 준(江藤淳)은 엔도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여성화’, ‘모성화’한다”¹⁵⁾고 지적했다. 한편, 1966년 발행 당시의 견해를 보면, 가스야 고이치(粕谷甲一)의 ‘정토신 종적인 구원’에 대한 표현이 ‘배교’를 긍정하는 것 같아 “기독교 신자의 본질적인 사명을 붕괴” 할 위험이 있다¹⁶⁾는 지적도 있다. 가톨릭 사제이자 신학자인 가스야 씨의 견해는

12) 笠井秋生(1987)「最初の小説『アデンまで』—キリスト教に対して抱く距離感」『遠藤周作論』双文出版社, p.64

13) 永藤武(1982)「遠藤周作・信仰と文学のはざままで」、戸田義雄編『日本カトリシズムと文学』大明社, p.106

14) 小久保實(1985)『遠藤周作の世界』和泉書院, p.172

15) 江藤淳(1985)「成熟と喪失—母の崩壊」(1967年)『江藤淳文学集成4』河出書房新社, pp.405-406

『침묵』이 출간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침묵』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짐작할 수 있다. 3장은 이와 같은 기존의 논문들을 참고하면서 신자들이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신에 대한 의문을 품는 로드리고의 심경과, 자신도 결국 체포되어 후미에 앞에 서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언제 체포될 지 모를 위험 속에서 관리의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신앙생활을 하던 로드리고와 신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 마을의 상황을 알아챈 관리들에게 급습을 당한다. 이치조와 모키치가 체포되고, 그들이 배교를 하지 않자 바다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묶어 조수가 차올라 익사하게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한다. 두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로드리고의 심경은 다음과 같다.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런 순교가 있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성인전에 쓰여 있는 순교 같은 것을—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로 돌아갈 때, 하늘에 영광의 빛이 가득 차고, 천사가 나팔을 부는 눈부신 순교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일본 신자의 죽음은 그런 눈부신 것이 아닌, 그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p.227)

두 명의 신자가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로드리고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 신이 어떤 대답을 할지 자문자답한다.

그들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그들의 죽음은 결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견디어 낼 수 없는 시련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모키치와 이치조는 지금 주님 옆에서 그들보다 먼저 간 수많은 일본인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지복을 누릴거라고 저도 물론 그런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p.227)

위의 두 인용문에 나오는 ‘순교’, ‘순교자’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라는 단어에 주목해보자. 로드리고는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신의 침묵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더욱이 그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순교’와, 이치조와 모키치의 죽음을 순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달랐다. 냉철하게 말하면 그 시대의 가톨릭 교회의 해외 선교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의 정치 상황과 현지 문화와 관습을 무시한 일방적인 선교로 인해, 억압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맹목적인 신앙으로 이끌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말하자면 후미에를 밟지 않고 죽음을 택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순교자로 인정되

16) 粕谷甲一(1966.7)『『沈黙』について』『世紀』世紀編集室、p.213

어 교회로부터 성자의 칭호를 수여 받았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배교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이러한 로드리고의 복잡한 심경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살펴보자.

『침묵』의 서문에는 로드리고가 포르투갈의 예수회 소속 신부라고 밝히고 있다. 페레이라의 배교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의 반응을 보면 당시의 유럽 가톨릭 교회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1635년, 로마에서 루비노 신부와 4명의 사제가 “페레이라의 배교라는 불명예를 설욕”하기 위해 일본 잠복을 결의하지만 교회 측은 처음에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 통솔자를 잃고 점차 좌절해 가는 신도들을 버릴 수 없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페레이라가 가톨릭을 배교하고 개종한 것을 두고 “단순한 한 개인의 좌절이 아닌 유럽 전체의 신앙과 사상의 굴욕적인 패배”로 여겼으므로 결국은 도항을 허락하게 된다. 한편, 그보다 2년 늦은 1637년, 포르투갈에서는 3명의 젊은 사제들이 그들의 스승이었던 페레이라의 배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이들 역시 페레이라가 “영광스런 순교를 했다면 몰라도 이교도 앞에서 개처럼 굴종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들 선교사가 일본 잠복을 결의하게 된 동기는 ‘유럽 전체의 신앙과 사상’에 대한 그들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배교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우월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위의 두 그룹의 선교사 가운데 실제로 일본에 잠복한 것은 로드리고의 일행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로드리고 일행은 포르투갈의 예수회 소속 신부이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가톨릭 교회의 위상은 쇠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 대응해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쇠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 가운데 특히 예수회는 16세기 가톨릭 교회의 반종교 개혁 운동의 중추가 되어 아시아와 남미 등의 미개척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벌여나간다. 예수회의 이러한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1549년에 프란시스코 자비에르에 의해 일본에 기독교가 전해진 것이다. 물론 『침묵』의 시대 배경은 일본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100년 이후의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예수회의 성격을 보면 로드리고 역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우월감과 선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신뢰가 확고했으므로 일본에 잠입해 신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 신자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그의 내면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로드리고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없었지만, ‘순교’라는 그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유럽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본의 기독교 신자들이 놓여 있는 상황과

는 오히려 정반대로 종교재판을 통하여 이단자와 이교도들을 처형하던 시기였다. 로드리고가 유럽과 일본이라는 이러한 극과 극의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럽의 가톨릭 교회에서 ‘옳다’고 여겨진 것이 일본에서는 ‘그르다’고 여겨져 많은 신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그 당시 일본인 신자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배교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기치지로의 밀고로 붙잡힌 로드리고가 함께 갇힌 모니카에게 다가올 고문과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정말로 영원한 안락이 있다고, 이시다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혹독한 연공 징수도 없다고 굶주림과 질병도 없고 가혹한 부역도 없다고/ (중략) /이 세상은 고통뿐이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겠죠, 신부님 (p.245)

이와 같은 대답을 들은 로드리고는 “천국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꿈을 짓밟는 것 같아 입을 다물어버린다. 로드리고는 선교사들이 전한 가르침을 신자들이 깨달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반대로 그 당시 선교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본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위의 모니카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지배계급에 대한 과도한 연공과 부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이러한 일본 민중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가톨릭이라는 종교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겠다는 의도가 더 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앞서서도 서술했듯이 페레이라의 배교를 “유럽 전체의 신앙과 사상의 굴욕적인 패배”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진 쇠국의 시대에, 막부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의 눈을 피해 신앙생활을 유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민과 어민들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인용글을 보면 배교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했던 신자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기대로, 그들은 단지 지금의 가혹한 현실에서 놓여날 수 있다는 갈망에 다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로드리고는 자신을 따르던 신자들과 가르침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또한 마침내 만나게 된 페레이라로부터 배교를 강요당한다. 로드리고를 배교시키려는 이노우에의 획책에도 불구하고 배교를 거부하던 그는 구덩이에 매달려 가혹한 고문을 받고 있는 신자들을 구하기 위해 마침내 후미에 앞에 서게 된다. 후미에 앞에 선 로드리고가 예수의 얼굴이 새겨진 목판을 밟느냐 마느냐의 행위 여하에 따라, 신자들이 살게 될지 처형을 당할지가 결정된다. 또한, 로드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순교자가 되느

나 배교자가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게 된 것이다. 그 때, 로드리고는 “동판에 새겨진 그 사람”으로부터 “밟아라”라는 소리를 듣는다.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사제가 후미에 위에 발을 올려 놓자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p.312)

『침묵』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두고 가사이 아키후(笠井秋生)는 “‘아버지 종교의 그리스도’에서 ‘어머니 종교의 그리스도’로 전환하려는 의도”¹⁷⁾라고 했고, 다마키 이쿠오(玉置邦雄)는 “심판하는 아버지 신에서 용서하는 모성적인 신으로의 이행”¹⁸⁾이라고 했다. 또한, “로드리고 자신이 싸워온 것은 박해에 대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였다”¹⁹⁾라는 야마자키 가즈히데(山崎一穎)의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정확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관점을 달리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로드리고가 일본 잠입을 결정한 것은 페레이라의 배교를 “유럽 전체의 신앙과 사상의 굴욕적인 패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 잠입한 로드리고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 신자들의 놓여진 상황을 통해, 서구 가톨릭의 보편이 일본에서는 보편 개념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유럽과 일본의 모순된 상황에 직면한 로드리고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의 결별 즉, 후미에를 밟는 행위를 통해 유럽 중심이었던 신의 이미지를 일본 문화와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모성적인 신의 이미지로의 전환을 꾀했던 것이다. 물론, 로드리고가 후미에를 밟게 되기까지 많은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톨릭의 종교적 편견에 눈을 뜨게 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후의 로드리고의 심경을 보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이 필요했다. 나는 이 나라 최후의 가톨릭 사제이다.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이 그분에 대해 말하고 있다. (p.325)

17) 笠井秋生(1987)『遠藤周作』双文社出版、pp.15-158

18) 玉置邦雄(1977)『現代日本文芸の成立と展開』桜楓社、p.15

19) 山崎一穎(1975)『遠藤周作・その作品世界』沈黙、『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p.151

후미에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리고는 자신이 “이 나라 최후의 가톨릭 사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식 이름을 받고 사형수의 아내를 맞아들여 살아가게 되지만, 자신을 배교자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가톨릭 사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로드리고는 처참한 박해로 인한 죽음을 순교라 부르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또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일본 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짐으로써 유럽과 일본의 모순된 상황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페레이라의 배교를 “유럽 전체의 신앙과 사상의 굴욕적인 패배”로 여겼던 유럽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동서양의 모순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르침의 본질에 가까운 것일까?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뇌한 끝에 마침내 로드리고는 아버지 되시는 신에서 어머니 되시는 신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어머니 되시는 신이야말로 학정에 시달리고 박해받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라는 큰 이념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새로운 담론이 가능할까. 그 가능성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4. 종교의 틀 깨기

문학과 종교는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深い河)』은 문학 텍스트이면서 신학적 사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문학과 종교의 상호보완적인 텍스트라 해도 손색이 없다.

지금까지 2장과 3장에서는 엔도가 그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인으로서 느끼게 된 종교, 혹은 신앙이라는 문제의식을 ‘일본 옷으로 고치는 작업’이라는 사유의 장을 통해 어머니 되시는 신의 이미지로 전환시킨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일본인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더 큰 의식으로 사유의 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깊은 강』을 통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깊은 강』은 엔도 슈사쿠가 투병 중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집필한 마지막 작품으로, 1993년 고단사(講談社)에서 발행했다. 전체 13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인도 여행에 참가한 4명의 이야기와, 인도에 있는 오쓰의 이야기가 더해져 각각 다섯 편의 독립된 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오쓰와 미쓰코, 미쓰코와 이소베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된다. 『깊은 강』은 다양한 주제가 내포되어 있어 엔도 슈사쿠 문학의 총결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⁰⁾. 기존의 연구 논문들 가운데 몇 편을 소개하면, 고지마 요우스케(小嶋洋輔)의 “『깊은 강』은 작중인물 『각자』가 초월적인 것을 통해, 『종교적인 것』을 취한 작품”²¹⁾ 이라고 했고, 나가하마 다쿠마(長濱拓磨)의 “어머니 같은 성향의 이미지가 『깊은 강』에서는 기독교의 틀에 머물지 않고, 확대되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다”²²⁾ 라는 견해를 비롯해, 아센서 아데리노(Ascenso Adelino)의 “엔도 슈사쿠는 작가로서 자신의 신앙을 일본 문화 속에서 구체화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보다 넓은 보편적인 의미의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하여 일본의 현실에 들어맞게 했다”²³⁾ 라는 견해가 있다. 나아가 다마키 이쿠오(玉置邦雄)는 “종교의 범위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괴로워하는 인간들의 영혼의 치유와 구원의 주제가 암시적인 수법으로 표현되어 있다”²⁴⁾ 는 견해도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의 주제에 부합하는 논문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4장에서는 『깊은 강』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특히 오쓰에 초점을 맞추어 사제로서의 그의 삶을 살펴보고,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오쓰에 관한 이야기는 10장에 따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미쓰코의 시점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미쓰코가 인도에서 오쓰를 만나게 되기 전까지 두 사람이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시절, 오쓰를 유혹하고 버리게 되기까지의 과정, 또 프랑스 리용에 있는 수도원으로 오쓰를 찾아가 그가 어떤 입장에 놓여있는지 알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보낸 엽서를 통해 사제서품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 등이다. 이 가운데 프랑스 리용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간 이후의 오쓰의 심경은 미쓰코를 통해 전해진다. 오쓰는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있으나 유럽의 기독교적 사고에 위화감을 느끼고 갈등한다. 오쓰가 유럽의 수도원과 신학교에서 겪는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① “3년간 여기에 살고 있지만, 저는 이 나라의 사고방식에 지쳤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20) 佐藤泰正(1999.5) 『『深い河』再読』 『キリスト教文学研究』 第16号、日本キリスト教文学会、p.26

21) 小嶋洋輔(2000) 『『それぞれの救い』 『宗教的なるもの』의 文学-遠藤周作 『深い河』 論』 『千葉大学日本文化論叢(4)』 千葉大学文学部日本文化学会、p.32

22) 長濱拓磨(2000) 『『深い河』とキリスト教<母なるもの>イメージをめぐって』 『キリスト教文芸』 第17輯、日本キリスト教文学会関西支部、p.64

23) Ascenso Adelino(2013) 『遠藤周作-その文学と神学の世界』 教友社、p.240

24) 玉置邦雄(2000) 『『深い河』 論-〈彷徨える人間〉の形象化を巡って』 『作品論遠藤周作』 笠井秋生、玉置邦雄編、双文社出版、p.285

빛고 그들의 마음에 맞게 만든 사고방식이.....동양인인 저에게는 무겁습니다. 스며 들지 않습니다”(p.218)

② “저는 유럽의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p.217)

위의 인용은 오쓰가 신혼여행길에 자신을 찾아온 미쓰코에게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인용①(번호는 필자가 붙인 것임)은 2장에서 언급한 엔도 자신의 경험과 최초의 소설 「아텐까지」를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아텐까지」의 ‘나’는 건강을 해치게 되어 유학을 도중에 그만두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병이 난 원인은 결국 유럽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초의 소설에서 다룬 주제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깊은 강』에 내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인용②를 보면 오쓰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유럽의 기독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수도원과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과 신학체계가 오쓰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곧 오쓰가 수도원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체험뿐만 아니라 자신이 택한 종교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깊은 탐구와 사유를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면 오쓰가 생각하는 기독교, 혹은 신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오쓰는 ‘신’ 을 ‘양파’ 에 비유하며 “양파가 버림받은 자신을 다른 장소에서 살려 주셨다”며, “신은 존재라기보다 움직입니다. 양파는 움직이는 사랑 덩어리” 라고 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미쓰코에게 설명한다. 이러한 오쓰의 표현을 두고 후루하시 마사나오는 “스스로의 체험, 또는 계시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이 믿는 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지식과 깨달음을 구하는 신앙」으로서의 신학적 영위의 실천”²⁵⁾ 이라며, 엔도의 창작방법에 나타난 신학적 의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후루하시의 지적처럼 엔도는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문학 속의 신학적 주제로 녹여내어 문학 속의 신학, 또는 신학 속의 문학으로 풀어냄으로써 문학과 신학의 만남을 모색했다. 이와 같은 엔도의 시도는 문학과 신학이 만남으로써 사람들이 종교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과 사유를 추구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오쓰는 이와 같은 인물 설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전 대학시절, 신의 존재를 믿느냐는 미쓰코의 질문에 대해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자신이 없었다”고 했던 그때와는 달리, 오쓰의 ‘신’ 에 대한 이해는 더욱 더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오쓰는 자신이 소년시절,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어머니의 온기가 실은 양파의 한 부분이었

25) 古橋昌尚(2014)「遠藤周作の創作方法に見る神学的意図—神学の方法と形態への示唆—」『遠藤周作研究 第七号』遠藤周作学会事務局、pp.84-103

다는 것을 어른이 되고 나서 알게 되었고, 자신이 찾았던 것은 “양파의 사랑뿐”이며, “교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교의”가 아니라고 이후 미쓰코에게 보낸 서신에서 밝히고 있다. 인용②는 기존의 종교적 패러다임의 틀을 벗어나는 발언으로, 오쓰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기존의 개념화된 틀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구두시험 때, 오쓰는 자신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신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다. 유럽의 교회나 예배당뿐만 아니라, 유대교 신자와 불교 신자 안에도, 힌두교 신자에게도 신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p.264)

이와 같은 오쓰의 생각은 영국의 신학자 존 히크(John Hick)의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임을 엔도 자신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존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²⁶⁾.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오쓰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그는 결국 자격이 유예되어 사제서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후 몇 군데의 수도원을 거쳐 사제가 되어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제서품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므로 그의 신에 대한 개념과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인도를 방문한 미쓰코와의 만남을 통해 오쓰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하자.

오쓰에 관한 정보를 들은 미쓰코는 인도의 바라나시를 방문해 오쓰를 찾아 다니지만, 그는 가톨릭교회가 아닌 힌두교도들의 사원에서 기거하고 있다. 그는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업고 갠지스 강의 화장터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한다.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봤을 때, 오쓰는 그곳의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쫓겼을 거라고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쓰는 자신이 가톨릭 사제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에게 양파의 흉내를 내는데 종교의 차이 같은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양파가 이 마을에 들렀다면 양파야 말로 쓰러진 이를 업고 화장터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말하는 교의”보다 양파의 사랑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수도원을 전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더욱이 그가 즐겨 읽는 책 가운데 간디 어록 중 몇 구절은 위의 인용과 상응하는 내용이다.

나는 힌두교도로서 본능적으로 모든 종교가 많은 적든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종교는 같은 신에서 나왔다. 그러나 어느 종교도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불 완전한 인간이 우리에게 전해왔기 때문이다. (p.323)

26) 遠藤周作(2000)『『深い河』創作日記(1991년9월5일)』『遠藤周作文学全集第』15卷、新潮社、p.287

앞서 말했듯이 오쓰는 사제가 되기 전부터 위와 같은 견해를 밝혀 왔다.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는 이단적인 생각이라 배척당했고, 사제서품을 연기 당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사제가 된 지금도 교회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가톨릭교회의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오쓰의 사유의 세계는 어느 한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침대 위에 널부러져 있는 책들 가운데는 간디 어록 이외에도 기도서와, 우파니샤드, 마더 테레사의 책도 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종교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읽음으로써 보다 폭넓은 사고와 인식을 확장할 수 있고, 또한 사유하는 주체로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깊은 강』의 마지막 부분에는 마더 테레사가 설립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에서 봉사하는 수녀들이 등장한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들을 도와주는 수녀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라며 거듭 물어보는 미쓰코에게, 수녀들은 “그것 밖에……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걸요 우리들은” 이라고 대답한다. 수녀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믿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흥미롭다. 앞서 미쓰코가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오쓰는 미쓰코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양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양파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신을 향한 맹목적인 신앙, 즉 외부의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할 때, 신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오쓰가 미쓰코에게 ‘양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을 향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종교라는 틀에 갇혀 그 방식대로 사고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쓰는 힌두교도들이 갠지스 강 화장터에서 금지된 사진을 찍은 산조를 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려다 대신 폭행을 당해 목숨이 위독한 상황에 이른다. 오쓰는 그가 있어야 할 교회에서 쫓겨나, 힌두교도들의 사원 아슈람에 기거하면서 어느 대상을 믿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즉 ‘복음’을 중시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후루하시는 “복음이란 예수가 2천 년 전에 실천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들의 옆에 서는 것, 그들 중 한 사람이 됨으로써 가능하다. 이 부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재해석하는 시도가 보인다”²⁷⁾ 고 지적했다. 후루하시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깊은 강』은 다양한 신학적 주제가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로서의 가톨릭 그 자체를 성찰하고, 나아가 종교의 틀 깨기를 시도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엔도 작품을 통해 문학적 상상력과 신학적 사유의 만남의 장이 어떻게 펼쳐지는

27) 古橋昌尚(2014)「遠藤周作の創作方法に見る神学的意図—神学の方法と形態への示唆—」『遠藤周作研究』第7号、遠藤周作学会事務局、p.88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엔도는 가톨릭 작가로 불리지만 가톨릭을 선전하거나 포교 활동,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다.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머니의 권유로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종교를 거부해 하며 의문을 품고 ‘맞지 않는 양복을 일본 옷으로 고치는 작업’, 즉 글쓰기를 하게 된다. 그런 연유로 『침묵』을 통해 지금까지 ‘엄한 아버지 되시는 신’의 이미지를 일본의 문화와 일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머니 되시는 신’의 이미지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깊은 강』의 경우, 오쓰를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들은 종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어디에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각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행에 참가했지만,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자신 안의 신성과 만나게 하는 여정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엔도 문학은, 문학과 신학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신은 종교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종교의 틀 깨기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江藤享(1985)「成熟と喪失—母の崩壊」(1967)『江藤享文学集成4』河出書房新社、pp.405-406
- 遠藤周作(1954)「アデンまで」『三田文学』慶應義塾大学出版会
- 遠藤周作(1980)『遠藤周作こよる遠藤周作』青銅社、p.71
- 遠藤周作(1992)「異邦人の苦悩」『切支丹時代—殉教と棄教の歴史』小学館、p.236(初出は「別冊新評」1973年12月)
- 笠井秋生(1987)「最初の小説『アデンまで』—キリスト教に対して抱く距離感」『遠藤周作論』双文出版社、p.64、pp.157-158
- 粕谷甲一(1966.7)「『沈黙』について」『世紀』世紀編集室、p.213
- 菊田義孝(1987)『遠藤周作論』永田書房、p.65
- 小久保實(1985)『遠藤周作の世界』和泉書院、p.172
- 小嶋洋輔(2000)「『それぞれの救い』、『宗教的なるもの』の文学—遠藤周作『深い河』論」『千葉大学日本文化論叢(4)』千葉大学文学部日本文化学会、p.32
- 佐藤泰正(1999.5)「『深い河』再読」『キリスト教文学研究』第一六号、日本キリスト教文学会、p.26
- 武田秀美(2000)「『アデンまで』二つの視点—「肌の色による非条理」と「黄色人にとっての神の探求」—」『作品論 遠藤周作』笠井秋生、玉置邦雄編、双文社出版、p.9
- 玉置邦雄(1977)『現代日本文芸の成立と展開』桜楓社、p.15
- 玉置邦雄(2000)「『深い河』論—<彷徨える人間>の形象化を巡って」『作品論遠藤周作』笠井秋生、玉置邦雄編、双文社出版、p.285<母なるもの>イメージをめぐる」『キリスト教文学会』第一七輯、日本キリスト教文学会関西支部、p.64
- 永藤武(1982)「遠藤周作・信仰と文学のはざまで」、戸田義雄編『日本カトリシズムと文学』大明社、p.106
- 古橋昌尚(2014)「遠藤周作の創作方法に見る神学的意図—神学の方法と形態への示唆—」『遠藤周作研究』第七号、遠藤周作学会事務局、pp.84-103
- 山崎一穎(1975)「遠藤周作・その作品世界、沈黙」『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p.151

山根道公(1977)『遠藤周作—その人生と『沈黙』の眞実』朝文社、2005年、p.120

Ascenso Adelino(2013)『遠藤周作—その文学と神学の世界』教友社、p.240

논문투고일 : 2018년 12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2월 11일
2차 수정일 : 2019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2월 15일

 <要旨>

엔도 슈사쿠 문학의 종교에 대한 틀 깨기

이영화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1923년—1996년)는 일본의 가톨릭 작가이다. 엔도 문학의 전반적인 핵심을 이루는 작품은 기독교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에세이와 희곡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자신이 가톨릭 신자였던 엔도는 특히, 신학적, 혹은 기독교적 주제를 문학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엔도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을 통해 서양의 엄격한 부성적인 신을 일본 문화와 정서에 맞는 자비로운 모성적인 신으로 그려냄으로써, 신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했다. 또한 최후의 작품이 된 『깊은 강』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통한 종교의 경계 허물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종교 너머를 사유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은, 자신의 종교를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신학적 주제를 문학적 소재로 활용한 엔도의 작품을 통해, 문학적 상상력과 신학적 사유의 만남의 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거꾸로 문학이 문학의 역할을 넘어 신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Breaking the mold of religion appeared in Endo Shusaku Literature

Lee, Young-Hwa

Endo Shusaku (1923-1996) is a Japanese Catholic writer. Although Endo's literature is constituted mainly of christianity novel, he had also been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essays and plays. As a Catholic, he wanted to express theological or christian themes in literary terms and had attempt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God's image through his masterpiece "Silence" by drawing the strictly paternal god of the West as a benevolent maternal god that conforms to Japanese culture and emotion, "Deep river", which became the final work, not only breaks the boundaries of religion through the idea of religious pluralism, but also makes it possible to think beyond religion. This kind of literary expression can come by the contemplation of his religion, not from blind fa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field of the encounter between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the theological thought is spread through the work of Endo, which uses the theological subject as a literary material, and, conversely, the influence of literature on theology beyond literature.